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❼ 미셸 데마르케, '9일간의 우주여행'



▶ 한줄 요약
삶의 가치 밝히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정토세계 연상, 티아우바 행성의 실상



미셸 데마르케 (Michel Desmarquet) 는…
프랑스 태생으로 오랫동안 호주에서 농부로 살아왔다. 58세가 되던 해인 1987년 6월 26일 자정쯤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가 9일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경험한 '티아우바' 행성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이 먼 옛날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 정진한 끝에 세웠다는 극락정토를 연상시킨다. '이미 성불이 결정된 정정취(正定聚)에 머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지구인들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삶의 좌표를 점검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다.



아름다운 빛깔 우주 풍경
천상 법음 들려주는 과정
인과와 연기의 사상 체험

정토세계와 지구인의 우주 여행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지구촌에 온 이상 누구라도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생은 앞과 뒤가 잘린 대하드라마의 한 대목을 사는 것과도 같아서, 전체의 대강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생과 후생을 믿는다고 해도, 전생에 과연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는지, 후생에 내가 어떤 과보를 받을지, 알 길이 없어 아득할 때가 많다. 그 불투명성이야말로 중생을 수행으로 인도하는 촉매제일 테지만.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대하드라마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자타카〉에 잘 나타나 있고, 수행이 익은 사람이 가게 된다는 '생로병사가 없는 영생의 이상향'에 대해서는 〈정토삼부경〉(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이 우리의 상상력을 한없이 부풀게 한다. 방대한 불경만으로도 전생과 내생에 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치지만, 마치 보충자료라도 되는 듯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전생담이나 '사후의 삶'에 대한 체험담(임사체험)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고 전체의 큰 줄거리 속에서 내 삶의 좌표를 찍어 보게 하는 탁월한 내비게이션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외계인을 직접 만났다거나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존재하고, 관련된 증언이나 책자, 영화도 적지 않지만, 본서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저자가 묘사하는 행성의 주민들과 그 생활상이 불경이 묘사하는 '정토세계'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 1987년의 어느 날 밤중에 잠에서 깬 호주의 한 농부는 자기도 모르게 잠옷을 벗고 바지와 셔츠로 갈아입은 다음, 자기도 모르게 책상으로 가서 종이와 볼펜을 집어들고는 "여보, 10일 정도 어디를 다녀오겠소.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메모를 남겨두고는 정원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갑작스레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상하의가 하나로 된 옷과 투명한 헬멧을 착용한 엄청나게 키가 큰 여인의 안내에 따라 직경이 70m에 달하는 우주선에 승선, 초광속으로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된다.

진화된 행성주민들과 삶의 모습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안내자 '타오'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알고보니 자웅동체로서, 남성도 아니요 여성도 아니다. 타오가 사는 별의 주민들은 '근원'과 완전히 합해지기 직전 상태인 9단계에 도달한 '각자(覺者)'들로서, 수천 년 동안의 수명을 누리지만, 수천 년을 살고서도 '몸을 바꿔' 다시 태어날 수 있으므로 사실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모두가 자웅동체이므로 남녀간의 섹스가 행해지지 않지만, 섹스보다 더 큰 열락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며, 언제나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고,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다. 키가 3m 안팎이지만, 필요에 따라 키를 줄이고 늘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중부양 능력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므로 개인마다 공중에 부상하는 운반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시속 몇백 킬로m로 이동한다.

그들이 사는 행성 '티아우바'는 여러 면에서 불경에 묘사된 '극락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아난아, 아미타불의 나라인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가지가지 나무가 온 세계에 충만하여 있느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큰 보배나무가 산들바람에 가지가 살랑거리면 한량없는 묘법의 음악이 울리는데, 이 음악은 이 세상 제왕들의 백천 가지 음악보다도, 전륜성왕의 음악보다도, 천억만 배나 더 훌륭하다.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평안하며 미묘하고 상쾌하여 안온한 열반의 경계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문과 보살과 인간과 천신들은 지혜가 한량없이 밝고 신통이 자재하며, 그 얼굴과 모습은 단정하고 미묘하여 세상에서 뛰어나 천상과 인간에 비교할 수 없나니, 그들은 모두 하염없는 법신과 그지없는 즐거운 몸을 가지고 있느니라."(아미타경 중에서)

티아우바의 자연 풍광은 지구인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빛의 20~50%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산과 강, 바다, 나비, 꽃 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구인인 저자는 한 차례 기절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대륙의 해안으로 빠르게 접근했다. 녹색, 검정, 주황, 황금빛의 바위들 위로 파도가 부서졌다. 한낮의 태양광선 밑에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무지개는, 오래 기억될 장관을 연출했다. 빛과 색깔의 띠가 형성됐다. 지구의 무지개보다 100배는 선명했다."

그런 바다 위를 밝은 분홍빛 날개 깃털과 밝은 녹색의 꼬리 깃털을 가진, 날개 길이가 4m쯤 되는 큰 새들이 날아간다. 키가 200m가 넘고 밑동의 지름이 20~30m에 달하는 나무들 사이로 양쪽 날개의 길이가 1m쯤 되는 영롱한 빛깔의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각종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마치 먼 곳에서 동일한 멜로디를 끊임없이 연주하는 플루트 소리 같은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배경음악'이 어디에서나 들려온다.

행성 진화단계와 '슬픔의 행성 지구'

타오의 설명에 따르면, 우주의 기본 패턴은 9개의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양계 9개는 다시 더 큰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 후자의 큰 항성은 전자의 9개 항성과 각각에 부속된 9개 행성의 공전 중심인 셈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이들 천체의 공전 중심인 우주의 중심이 나올 것이지만, 이런 우주가 얼마나 될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행성 또한 9개 범주로 나뉘게 되는데, 티아우바는 9번째 범주의 행성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아쉽게도 지구는 첫째 범주의 행성으로, 가장 낮은 단계이다. 지구는 티아우바 주민들에게 '슬픔의 행성'으로 불리운다. 지구는 기초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유치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범주의 행성은 좀 더 윗단계의 가치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셋째 범주는 중등학교이고, 그 다음은 대학 과정으로 이어진다.

9개 범주의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 발전 단계가 달라진다. 영적으로 발전할수록 윗단계의 행성으로 가서 우수한 생활방식과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도 훨씬 더 쉬워지고, 이는 다시 생활방식을 더욱 단순화시킨다.

티아우바는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낙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한 영혼이 되어 누리게 될 진정한 행복에 비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타오의 해설이다.

티아우바인들의 주된 메시지

티아우바인들이 특정한 지구인에게 초광속 우주 여행을 통해 자신들의 행성을 여행하게 하고, 그 여행담을 책으로 써서 지구인들에게 알리도록 의도한 이유는, 지구인들의 앎과 지혜를 확장하여 장차 다가올 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구에서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된 지 1만 4500년이 지났지만, 이 기술은 '진정한 앎'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인류는 가까운 미래에 큰 사고를 칠 것이 예견될 만큼 위험한 생각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영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물질적 기술은 필연적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기술은 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으며, 지금처럼 인류를 물질주의와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임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육신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어가는 영적인 존재다. 육체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영적인 발달이다.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학습도구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애에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티아우바인들은 이 책을 통해 지구인들의 기존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영혼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윤회 전생의 원리를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지구인들이 현재 잃어버린 지식과 과학에 대하여, 아스트랄 여행과 텔레파시, 공중부양, 마음의 발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한편, 가슴 벅찬 미래의 정토를 일견하게 하면서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수행 의지를 북돋아 준다.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